

봉개쓰레기매립장 사태 ‘산넘어 산’

지역주민 19일 음식물쓰레기 차량 진입 전면 차단
제주시, 반입허용 요청… 밤 8시 현재 주민 회의中
반발 장기화시 제주시지역 쓰레기대란 불가피할 듯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이 19일 새벽부터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구를 봉쇄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반입을 차단했다.
쓰레기 반입 차단이 장기화 될 경우 제주시 관내 쓰레기 처리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봉개쓰레기매립장 원천 폐쇄를 선언했다. 주민들은 이날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를 하며 쓰레기 차량 진입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9대가 쓰레기매립장내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센터로 진입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밖에서 대기했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총 24대로, 1대당 하루 두 차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오전에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후 수거에 다소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활용품 처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업체들이 이곳으로 재활용품을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반입 차단이 장기화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각장으로 가는 가연성쓰레기를 먼저 싣고 온 다음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아예 재활용품을 싣고 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반입 차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원천 폐쇄를 선언하면서 “봉개동 매립장에서 1992년 8월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3번의 연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번 쓰레기대란만은 막아달라는 행정의 요구로 폐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까지 침해받으면서 참아왔다”며 “하지만 세 번도 모자라 이제 다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오늘부터 봉개쓰레기매립장내 어떠한 폐기물 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

한 봉개동쓰레기 매립장은 2011년까지 사용키로 돼 있었으나 행정과 주민대책위원간의 합의를 통해 운영 기간을 매립장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에도 봉개매립장을 대체할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지 않아 2018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한번 더 합의했다.
이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해 2018년 다시 협약을 해 매립장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사용하고, 재활용품·음식물처리시설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색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 준공예정일이 2023년 상반기로 1년여 늦춰지게 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시의 반입 허용 요구에 따라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의에 들어갔으나 오후 8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책위에서 봉개쓰레기매립장 폐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봉개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19일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이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차단하며 매립장 원천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가칭)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립 추진

도, 21일 도민 공개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평등 교육 및 인식 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가칭)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3시부터 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가칭)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도

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장의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방안’,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의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추진 방향’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련된다.

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제 시민 의견 및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가칭)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제주지역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교육 전문기관 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지역 특성화 교육 지원 및 연구,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 네트워킹 구축,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소규모 공익·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마을회·민간사회단체 대상
도, 3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의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00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동,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사업선정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행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윤기자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순조’

도, 8월 중 유적지 선정 시작
12월까지 관련된 절차 마무리
보존·관리·활용 등 계획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개최해 4·3 전문가와 관련 문헌,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마련된 주요 유적지 30여 개소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주요 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 유적

지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4·3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게 된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종합관리계획은 4·3 주요유적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비롯해 ▷4·3 주요유적지 기본방향 구상 및 정비계획 수립 ▷국가등록문화재 승격지정 전략 구상 ▷국비 등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4·3유적지에 대한 중장기 정비 계획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은 효율적인 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유적지 보존관리체계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비지원 타당성 논리를 뒷받침해 안정적인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게 제주자치도의 방침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12면 출산 축하 /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신설 게재



70 KSA 한국해운조합 창립 70주년



8·15 광복 74주년을 경축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제16대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회장 고 성 원

한국해운조합 제16대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국 2,300여개 조합원을 대표하여
해운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안해운발전협의회 일동

그린해운(주) 대표이사 최양호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고영철 (주)두산해운 대표이사 박원영	대양해운(주) 대표이사 고성원 성우해운(주) 대표이사 최무현 (주)성우 대표이사 강공철	삼성해운(주) 대표이사 김만호 오성시멘트(주) 대표이사 오영진 (주)신광 대표이사 정갑선	삼진해운(주) 대표이사 김상완 일광산업(주) 대표이사 고인철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장 정상호
--	--	---	--